

## 가치관과 의식구조

한국인의 실태를 언제나 비판적으로만 보는 한 외국인이 있었다. 나는 어떤 인연으로 그와 지방으로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우리 앞에, 꼭 피난민같이 내일을 모르는 듯한 차림의 초라한 시골집들과 사는 모습이 전개됐다.

그는 한국인의 게으름과 합리적인 생활을 할 줄 모르는 점들을 열거하면서 통탄해 했다. 그것은 한국을 사랑한다는 그의 정열의 발로라고 생각했기에 그저 듣고만 있었다.

그 대신 나의 적은 지식으로 老莊의 사상을 내 나름대로 풀이하고 한국의 仙 사상에 이와 상통하는 점이 있음을 여러 모로 설명했다. 그는 평소에도 노자의 도덕경에 관심이 있는 터라 꽤 흥미 있게 들었다.

그때 이야기는 서구 청년들의 반문화운동에도 옮겨갔다. 집을 뛰쳐나와 머리나 의복을 아무렇게나 하고 반 거지처럼 유랑하는 서구 청년들은 고향 잃은 짐시처럼 선세제로 범람할 때다. 그는 청년들의 운동을 극구 찬양하며 그들에게서 새로운 예명이라도 기대하는 듯했다. 그런 얘기 끝에 나는 그에게 한국의 농민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주시해 보라고 했다. 그는 내 의도를 얼른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저들의 생활자세와 서구 청년의 반문화적 생활과 통하는 게 없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연했다. 나는 이틈에 너희들은 물질과 편리의 노예가 되어 밤낮 짐을 꾸리고 닭고 고치며, 밤낮 가게부에 매달려 인심은

고갈되어 있고, 합리적이요 경제적이라는 이름 밑에 실은 비인간화 되어 가지 않느냐고 했으며, 네 눈에 저들이 비참하게 보인다고 하나 그렇게 보이는 네 눈에 대한 비판은 없다. 실은 네가 비참하다는 것은 너도 동조하는 너희 젊은이들이 저항하는 산업사회적 기존질서가 준 눈으로 보는 것이다. 저들은 비록 초가삼간을 짓고 남루하게 살아도 그렇게 비참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너는 저들이 제사나 잔치 때에 온 동리의 축제로 만드므로 그 다음에 가계부 걱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나, 그것을 물질 따위에는 초탈할 줄 아는 보다 큰 자세로 볼 수 없느냐! 뭐 집이야 이슬이나 가리우면 되고 음식이야 굶어 죽지 않을 정도면 됐지. 그런 것을 잘 갖추기 위해서 비인간화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내 역설은 역설을 위한 점이 물론 있었고 내 신념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 됐다. 그는 그 후부터 일체의 비판을 보류할 수밖에 없었고, 마치 새로운 삶의 길이라도 발견한 듯이 한국을 정반대로 보기 시작했으며, 여기를 떠날 때는 자기의 다음의 과제를 찾았다고 했는데 그가 세운 목표는 바로 <도덕경> 3장의 내용이다.

不尙賢，使民不亂，  
不貴難得之貨，使民不爲盜  
不見可欲，使民不和  
是以聖人之治，虛其心，實其腹，強其骨，弱其老  
常使民 無知 無欲，使夫知者  
不敢爲也，爲無 爲無 不治

지도자니 엘리트(賢)니를 존중 말라. 그러면 사람들은 자리다툼에 그 정력을 소모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이 가지려고 애쓰는 것들을 떨시하라. 그러면 부정 부패나 사기 행각(盜)은 없어지리라.

소비를 자극하는 선전을 하지 말라. 그러면 민심에 출간이 없을 것이다.

安炳茂

참 옳은 정치는(見以聖人之治) 사람의 욕심을 비우게 하고(虛其心), 경제적 노력은 배를 부르게 하는 정도이고, 야욕으로 향하는 의지를 약하게 하고, 비겁하지 않기 위해 육체나 정신의 중추(骨)를 튼튼히 하게 한다. 기존 사회의 가치나 동향을 알리는 욕심이 없게 하며 내노라고 하는 자들을 목살하게 한다. 가장 옳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치를 하는 것이다.

이 해석은 아전인수적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하면 바로 서구문명의 중추를 향해 도끼를 드는 것이다. 後聞에 의하면 그는 귀국해서 침대도 의자도 켜피도 버리고 半동양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단다.

가치란 그 자체로 독립된 것이 없다. 그것은 주관성과의 관계에서 형성된다. 그러므로 가치관이라고 한다. 가치관은 객관과 주관성의 관계 개념이다. 아무런 대상도 없이 가치관이 형성될 수는 없다. 아무리 일부에서 소중하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하거나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주관도 객관적 가치를 무조건 목살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객관적인 대상과 그것을 규정하는 나 사이에 불가변의 공통성이 있을 때다.

그런데 가치 형성의 과정에는 필연성은 회구한데도 비대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객관성과 주관성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조작성 때문이다. 가령 낡은 우표의 가치 따위가 그런 것이다. 서구에서 출발한 우표수집과 풍조는 세계적인 것이다. 서구에는 우표를 파는 상점은 물론 우표교환시장이 있다. 그 장소는 증권시장만큼이나 분주하며 그 자리에서 경매시장처럼 그 값이 순식간에 수백 배로 급승될 수도 있다. 어떤 우표는 수백만 불을 호가한다고 한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처럼 희귀한 현상은 없다. 낡은 우표는 그 사용적인 면에서 볼 때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만드는가?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는 전혀 없을 만큼 가져야 할 것은 다 갖고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제도 못느끼는 계층들이 평범한 것 아닌 독특한 것에 관심

가치관과 의식구조

을 보이고 그것에 취미를 두려는 데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귀족계층의 산물이다. 그런데 귀족주의는 저들의 취미를 가치화한 것이다. 저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것이며 나도 가져야 한다. 그럼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저들의 반열에 끼려는 서민의 모방이 따랐다. 귀족들은 이런 동향에서 자기들의 동일성을 의식화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뿌려서 가치를 형성 유지하게 한다. 그래서 취미의 대상이 경제적 단위로 바뀌게 된다. 낡은 우표가 모조리 없어진다면 삶에 지장이 올까. 전혀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러나 그 수집벽에서 습성화된 사람들에게는 타격이 올 수 있다.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것과 외래적인 것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 젊은이들은 서구적인 것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세대가 형성한 상황에서 자랐다.

그것은 우리것은 무조건 내버려야 할 것이고 서구적인 것이면 무조건 가치있는 것이라는 풍조를 낳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것이 역전해서 한국적인 것은 무엇이나 좋다는 풍조가 대두됐다. 여기서 우리의 가치관의 혼란이 생긴다.

한국적인 것에 가치를 찾으려는 것은 일단 좋은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풍조에도 조작이 있으며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 그것에는 특히 정치적 조작이 크게 역할한다. 가령 경제체제는 근대사회라는 이름 아래 경제 제일이라는 풍조를 최대한으로 자극하여 돈이 가치의 기준이 되게 했으며, 인간 평가마저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생산성에 두고 있다.

이것이 한국적인 것인가 동양적인 것인가, 이에 반해서 정치체제는 이른바 한국적 민주주의 운운하며 민권이나 자유라는 개념도 외내적인 것으로 단죄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한국적 민권, 한국적 자유라는 개념이 규정된 것도 아니고 단지 한국적이라는 말을 마술적으로 강조하여 모호하게 하는 것뿐이고, 그 바람에 편승해서 한국적인 ××을 찾고 그것을 무

安炳茂

비판적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있다. 그게 바로 상투를 틀고 자전거 타는 격이 되는 것이다. 한국적인 것과 백억 불 수출, 천 불 소득이 마치 국가의 가치관 자체처럼 내세우는 것 사이에 합리성이 있는가? 생활양식과 정신생활은 별개의 것으로 따로 둘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애매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가치관은 의식구조와 사회구조와의 차질에서 흔들리는 것이다. 나의 선 자리를 의식한 데서 출발해서 사회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끌어들이는 사회구조나 풍조에 의해서 의식구조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상황이며, 여기서 가치관은 무너져 버린다.

오늘의 한국 청년들은 외래적 사회풍조에 자기 몸을 내맡기면서 머리는 한국적인 것을 운운하는 데서 가치관을 상실하고 있다. 외래자본의 폭행에 분노하면서도 자나깨나 심지어 산에 오를 때까지 트랜지스터를 들고 다니며, 고분에서 나오는 원시적인 내것에 대한 향수를 억지로라도 짜내려 하면서도 외래음물에 원래 다르게 생긴 몸의 리듬을 파괴하고 그 음물에 자기를 흡사하는 것을 의무처럼 알고 있다.

구세대의 부정 부패를 규탄하며 자기들은 저들에게 물들지 말고 새로운 젊은 세계를 창조한다고 기염을 토하면서 구세대가 부정하게 번 돈에 자기 몸을 담그고 있으며, 그 유산 위에 자기 실존을 구축하려고 한다. 그런 세대의 새 가치관이 선정될 수가 없다.

가치라는 것은 지금 여기 서 있는 나와의 불가분의 필연적인 것에 성실하는 데서 형성된다. 가치란 기존의 어떤 것이 아니고 나에게 성실한 자의 창조물이다. 나에게 성실한 사람은 나의 실존과 직접 상관없는 강요된 것에서 자유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것은 남이 좋다니 그저 좋은 것으로 알고 그것에 세뇌당하고 그것에 노예화된 데서 자기를 되찾는 일이다. 남이 마시니 나도 마시고, 남이 요사한 춤을 추니 나도 취야 하고, 남이 머리를 기르니 나도 길러야 한다는 무비판적인 모방 속에서, 나를 이끌 가치관은 백번 죽어봐도 나오지 않는다.

요는 우리에게 무엇이 급선무인가를 가려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것은 잃은 나를 되찾는 일이다. 잃은 나를 되찾는 길은 필연적이 아닌 것이 나의 제2천성처럼 된 것에서 탈출하는 데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함께 냉정한 검토를 해야 될 문제다. 그러나 단언할 수 있는 것은 나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것이 나를 사로잡아 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자명적인 것으로 알아 일상생활화된 바로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이다.

처음 언급한 한 외국인에게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에 무비판적 자명성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자학하고 자기 모멸을 일삼는, 그러므로 콤플렉스 속에 있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부동의 원리에 기준한 것인가, 후진국이라는 서구인들의 규정을 그대로 낸 것으로 그 기준은 경제적 측면 아닌가? 그러기에 경제 제일을 내세우지 않았나? 이것은 밖에서의 비교에서 온 콤플렉스의 발로가 아닌가? 우리도 무비판적으로 이런 콤플렉스에 있지 않나? 그러한 나를 살리는 가치관의 수립은 불가능하다. 한번 완전히 뒤집어 봐라. 앞선 놈이 뒤섰다는 사실을 밝혀 봐라. 그런 것이 새 가치관 수립의 거점이다.